



기획시리즈



임경빈  
아카시아 연구회장

# 조경수목산책 (X III)

- 느티나무 -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192호, 경북 청송 신기동, 1988. 6.

## 느티나무의 명칭

느티나무는 아름다운 수형을 가지며 목재의 쓰임새가 넓고 그 재질이 뛰어난에도 불구하고 느

릅나무나 회화나무 등에 밀려난 듯한 느낌이 있다.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선조들이 회화나무는 괴목(槐木)이라 해서 귀한 나무로 여겼고

기록에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느티나무는 그 명칭 거수(檉樹)가 옛 책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회화나무는 괴위(槐位)라든가 괴정(槐鼎)이라 해

서 높은 벼슬 자리를 상징하는 중국 주대(周代)부터의 고사에 연유해서 사람들의 아낌을 받아왔지만 느티나무는 그러하지 못하다.

선만식물자휘(鮮滿植物字彙)에 보면 거수(櫟樹 또는 栢樹)마저도 팽나무(榎樹) 비슷한 것으로 설명하고 그 열매는 성숙했을 때 달고 생으로 먹을 만하다고 했다. 따라서 거수라 하면 팽나무류를 뜻하는 것으로 된다.

괴(槐)를 회(檉, 괴)로 쓰기도 하나 이 두 글자의 중국 발음은 같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槐를 일반적으로 쓰지 檉는 그다지 쓰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우리 나라의 느티나무를 광엽거(光葉櫟) 또는 대만거(台灣櫟)로 말한다. 잎에 녹색의 윤기가 있어서 이러한 명칭을 얻었고 대만거라 하는 것은 대만에만 자라고 있다는 해석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지 우리 나라의 고서(古書)에나 또 시문장에 느티나무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느릅나무, 회화나무, 팽나무 등과 좀 색다르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풀이하기 쉽지 않다. 정태현 박사는 느티나무의 한자명으로 괴목(槐木), 거(櫟), 규목(槐木) 등을 들고 있다.

일본인 우에하라는 느티나무의 한자명칭으로 여러 가지를 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 중국과 공통이라고 할 수 있는 느티나무 거(櫟)이다. 회화나무를 뜻하는 괴목(槐木)을 느티

나무 한자명으로 들고 있는 것은 지난 날 나무명칭에 대한 한자명의 부정확성에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느티나무를 괴목(槐木)으로 말했고 느티나무 목재로 만든 밥상을 괴목상이라 해서 귀하게 여겼다. 왜 괴목이란 말로 느티나무를 뜻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또 느티나무 명칭으로 느릅나무 유(榆)자를 들고 있는데 옛적에는 느티나무, 느릅나무, 회화나무가 혼동된 일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또 귀목(貴木)이란 명칭도 있는데 귀자는 가마채나무 귀로 읽는다고 옥편에 나와 있다.

흔히 느티나무로 가마채를 만들었다면 또 느티나무를 귀(貴)한 나무(木)라고 친다면 이 명칭은 받아들일 수 있다. 또 느티나무를 규목(樛木)으로 말하는데 규자는 나뭇가지가 아래로 처지는(木枝下曲) 모습을 표현하는 글자이다. 느티나무는 오래되면 결가지가 멀리 퍼지고 그 결가지에서 다시 작은 가지들이 많이 나서 아래로 드리우게 된다. 그래서 느티나무는 정자나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그 아래에 좋은 그늘을 만드는데 이것은 긴 결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데 이유가 있다. 이런 느티나무의 성상을 생각한다면 규목(樛木)이란 명칭은 좋은 착상에서 얻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느티나무를 거류(櫟柳)로 말하는 것도 결가지의 처지는 성상에 관련된 명칭인가 생각해 본다.



▲ 긴잎느티나무. 강원도계. 1989. 5. 29.

## 도계의 긴잎느티나무

1989년 5월 28일 나는 강원도 쪽에 자라는 이른바 노거목(老巨木)을 보고자 나섰다. 먼저 도착한 곳이 삼척군 하장면 갈전리였다. 일단 강릉으로 가서 다시 동해시를 지나 접근하게 된다. 하장면으로 간 것은 그곳에 천연기념물 제272호 느릅나무가 있기 때문이었다. 느릅나무는 느티나무 그리고 팽나무 등과 함께 느릅나무과에 소속되고 서로 인연이 가깝다. 느릅나무속의 나무는 열매 둘레에 날개부분이 있고 모양이 납작하여 작은 동전 꼴이나 느티나무의 열매는 원추형으로 둥글고 열매에 날개같은 부분이 없다.

그곳 느릅나무 가까운 곳에 20m 쯤의 거리를 두고 큰 갈참나무



▲ 긴잎느티나무의 앞모양. 강원도계. 1989. 5. 29.

와 엄나무가 있었는데 이 세 그루의 나무는 모두 줄기의 흉고직경이 약 80-90cm에 이르고 있었다. 옆에 서낭당 집이 있었다. 음력 정월 보름날에는 제사를 올려 마을의 평안을 빌고 농사일 잘되기를 빈다고 한다. 이 동신(洞神)은 이곳 높고 큰 나무들로 된 숲에 만족하면서 진좌(鎭座)하여 주변의 나쁜 기운을 쫓아버리고 마을을 지켜온 것으로 마을 사람들은 믿고 오랜 세월동안 살아왔다. 동신은 1년 365일 항상 이곳 숲안 당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더러는 나들이에 해당하는 출타가 있었을 것이고 가는 곳은 다름이 아니라 고향의 성격을 지닌 하늘나라 신들의 본적지일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이처럼 신들이 오고 가는 통과지의 하나로서 당사 주변의 크고 높은 나무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숲은 당사가 놓여있는 곳의 표식이 될 수도 있고 나무 줄기의 끝은 하늘로 떠나는 출발지점도 될 수 있고 하늘 나라에서 돌아올 때의 귀착지점도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노거목이란

것은 존귀한 신들의 교통로로서 역할을 했을 것이고 때로 줄기에 뚫어진 동공은 간혹 잡신의 거주처가 되었던 것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믿었던 것으로 안다.

이곳은 해발고 약 550m 되는 곳으로 느릅나무 거목의 줄기 수피는 측면의 반쯤은 썩어가고 있었다. 썩은 측면 쪽의 결가지도 아울러 죽고 있었다. 이쯤 되면 마을을 지켜주는 신은 다른 더 알맞은 곳을 찾아 이곳을 떠날지도 모른다. 얼마 전까지 근처에 큰 느릅나무 5-6 그루가 있었으나 바람의 해를 받아 넘어졌다. 신의 거주지는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다음 우리가 찾은 곳은 삼척군 근덕면 선흥리에 있는 엄나무였다. 1100년생이라 하니 엄청난 노거목이다. 엄나무나 느릅나무에 대하여서는 다시 본 지에 쓸 날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설명을 피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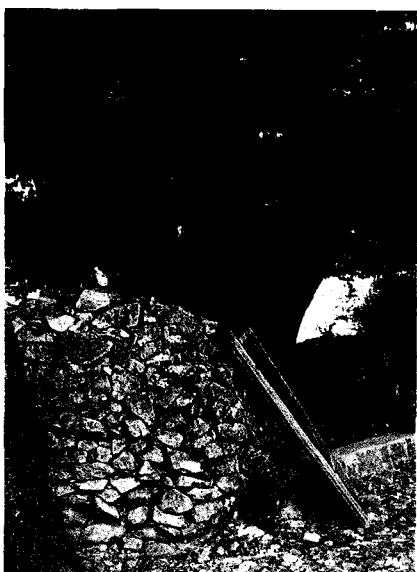
이곳을 떠나 우리는 동해바다를 왼쪽으로 보면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갔다. 5월의 동해물은

유난히도 진한 벽감으로 물들어 있어 우리의 마음을 잔잔한 골목으로 이끌어 잠재우는 데 넉넉했다.

우리는 이번 여행길에 명주군 강동면 바닷가에 있는 해신당(海神堂)에 들렀다. 해신당은 해랑당(海浪堂) 또는 해랑사(海浪祠) 등의 별칭이 있다 한다. 숨겨진 전설이 흥미로웠다.

약혼한 어부 총각이 바다 풍랑으로 빠져죽자 한에 못이긴 이 마을 처녀가 끝내 숨지고 만다는 줄거리인데 그때부터 고기잡이가 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그 원인이 아가씨의 원혼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바닷가 봉화산에 해랑사를 짓고 그 닛을 위로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 것은 나무로 남근(男根)을 다듬어 이 사당의 벽에 주렁주렁 달아 두는 것이고 몇 개는 나무가지에 매어 달기도 하는 모양이다. 이 마을에는 알맞은 굵기의 소나무 가지를 재료로 하여 솜씨 좋게 많은 수의 남근을 조각해 내는 분이 있다고 한다.

사당 안에는 향나무로 된 남근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가져갈 수 없는 비치품인 것 같았다. 벽에 소나무로 된 것이 있기에 필자는 실례를 무릅쓰고 가지고 왔다. 이 남근의 사진은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게재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흥미있는 것은



▲느티나무와 들썰기 민속신앙. 경남남해. 1994. 7. 19.

처녀의 사무친 원한이 남근으로서 가라앉는다는 무척 육정적감성론(肉情的感性論)으로 처리되고 있는 우리의 정신문화의 일면이다.

도계의 긴잎느티나무를 찾아가는 길가에서 우리가 얻은 부산물은 이처럼 많았다. 삼척군 도계읍 도계리에 천연기념물 제95호 긴잎느티나무가 있다. 서 있는 곳이 도계여자중학교 운동장인데 지금 학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다. 수령 1000년으로 잡고 있으나 삼척군지에는 2000년 정도라 해서 높게 잡혀지고 있다. 이 나무는 수고 약 20m, 줄기의 흉고둘레 약 7.5m나 되는 거목이다. 도계읍민의 성황당나무로 되어 주민을 지켜온 유래가 있다.

긴잎느티나무는 그 이름이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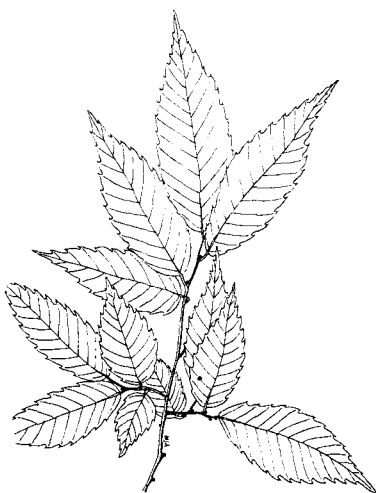


그림 1. 긴잎느티나무. 강원도계. 1989. 5. 28.

해주듯이 잎이 일반 느티나무의 잎에 비해서 더 길다. 다음 천연색 사진으로, 또 그림으로 이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긴잎느티나무는 이곳 도계 이외에도 우리 나라 몇 곳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계의 긴잎느티나무는 무언가 바람을 기원하면 그것을 성취시켜 준다는 말이 있어서 그것이 습속의 하나로 되기도 했다. 특히

고려 말에는 많은 선비들이 이곳으로 피난을 했기에 이 나무는 학문하는 분위기와 관련이 지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입학시험의 계절이 되면 많은 학부모들이 이 나무를 찾아 자녀의 합격을 기원한다. 이 나무가 학교 운동장에서 있기 때문에 동신이 거처하기에는 좀 시끄럽고 부산한 느낌이 있어 동신목(서낭당나무)을 다른 곳의 나무로 바꾸고자 한 바 있었다. 그때 이 나무의 진노를 사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려 변경계획이 취소되었다는 말이 있다. 나무의 신은 천진무구한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은 모양이고 또 도계 주변에는 이 나무를 대신할 만한 나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이나 사람이나 오랫동안 거주한 거처는 정이 들어서 옮겨가는 데 마음이 내키지않는 그 무엇이 있다.

느티나무의 변종인 긴잎느티나무는 혼한 것이 못된다. 이 나무는 일정시대에 이미 천연기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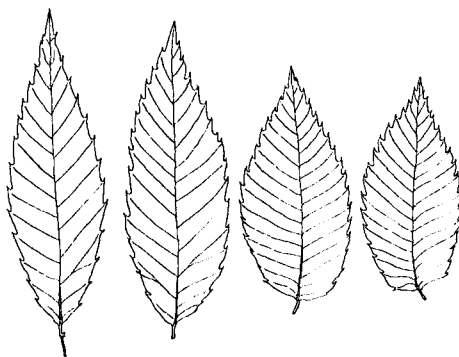


그림 2. 긴잎느티나무(왼쪽)와 일반느티나무(오른쪽). 1989. 5. 28.

로 지정된 바 있는데 당시의 기록을 보면 긴잎느티나무는 조선의 특산수목이고 눈높이 줄기둘레 8.54m, 수고 26.8m이며 가지피짐은 동쪽 16m, 서쪽 17m, 남쪽 18.2m, 북쪽 16m라는 측정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수치를 보면 수관은 동서남북 고루 사방으로 비슷하게 확장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이것은 비슷한 경향이다. 다만 수고 측정치가 일정시대보다 더 낮게 나타난 것은 이 나무의 노쇠에서 온 것일까 아니면 측정상의 잘못 때문일까.

도계의 느티나무는 너무나도 웅장한 맛을 풍기고 있어서 나는 그곳을 쉽게 떠나고 싶지 않았다. 나무가 커서 사진기 안에 모조리 담기가 어려워서 나는 먼 곳까지 떨어져 전경을 담아 보았다. 어떤 연유로 해서 긴잎느티나무 한 그루가 이곳에 나타나 천연의 수를 왕성한 생리로 즐기고 있는가 하고 감회에 젖어 보았다. 그 위용을 몇 번인가 되돌아보면서 그곳을 떠났다.

### 현고수(懸鼓樹) 느티나무

경남 의령군에는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이름난 노거목이 있어서 의령으로 가기로 한 날이 1995년 1월 17일, 겨울이라 하지만 푸근한 날씨였다. 노거목을 본다는 것은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오랜 세월 갖은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온 그 위엄에 외경을



▲현고수느티나무. 경남 의령 유곡 세간리. 1995. 1. 17.

느끼고 그 사연을 들어본다는 것은 소중한 일일 것이며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본다는 것은 또 더한 환희일 수 있다.

김포를 아시아나 항공기로 떠나 김해로 가서 차를 몰아 창원시를 지나 의령으로 갔다. 의령읍 가까운 곳에 큰 소나무가 있었고 천연기념물 제395호로 지정되어 있었다. 또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다. 소재지는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인데 이 나무에는 작은 유주(乳柱)가 발달해 있다. 이 은행나무 근처에 현고수 느티나무가 있다. 현고(懸鼓)라 하면 북을 걸어두고 등등 쳤다는 뜻이다. 이 나무에 얽힌 사연은 이러하다. 임진왜란(1592) 당시 의병대장 광재우 장군께서 의병을 훈련할 때 이 나무에 북을 달아 놓고 치면서 독려하고 병술을 가르쳤다고 한다. 비스듬이 누운 느티나무의 줄기이고 보면 북을 다는데 알맞았다고 생각된다.

이 마을 세간리는 애국의사를 훈련한 명예스러운 역사를 안고 있다. 이 마을은 평탄한 농경지에 둘러싸인 지형이었고 현고수 느티나무 주변은 논으로 되어 있었다. 이 느티나무는 보호와 관리가 잘되어 있었다.

선조 25년(1952) 4월 13일 왜적이 부산포에 침입하자 41살의 유생 광재우 장군은 이곳 유곡면(有谷面) 세간리(世千里)에서 의병을 모아 훈련시킨 것인데 적군을 눈 앞에 둔 위기상황에서 용약일전을 각오하고 죽음을 내던질 애국심에 불탔던 것이다. 이 나무 옆에 광재우 선생의 집이 있었다고 한다.

현고수 느티나무는 수고 약 15m, 흉고줄기둘레 7m로 측정되었다. 동네사람들이 이 나무를 아끼고 있었다. 이 마을의 서낭당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느티나무가 아니고 앞에 말한 은행나무였다.

나무에 대한 치성이 대단한 것으로 보였다. 마을에 노거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을의 힘을 말해주는 것이며 자랑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마을에 노거목이 없다면 그 마을은 초라해진다. 정태현 선생의 책을 보면 마을에는 반드시 몇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기록이 있다. 심을 것을 지시하고 있는 표현에 호감이 간다.

진주 사천 비행장으로 와서 오후 5시 반의 아시아나 비행기로 서울로 왔다.

서울 시내에서는 차가 많이 밀려서 집에 도착한 시간은 무척 늦었으나 오늘 좋은 나무들을 여러 그루 보았기에 신바람 나는 하루였다.

현고수 느티나무의 북소리가 등당 등당 아직까지 그리고 서울까지 들려오는 착각 속에서 잠을 청한 것이다.

### 해인사 백련암의 느티나무

1994년 7월 24일 우등버스로 대구로 가서 해인사로 갔다. 팔만대장경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 표지판에 보면 자작나무를 소재로 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 8만 대장경이 모조리 자작나무로만 된 것일까. 그때 거제도에 자작나무가 많았다고 하며 그래서 대장경은 거제도나무라고도 한다. 자작나무 속의 나무들은 비슷한 재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나무들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느티나무 거목. 해인사 백련암. 1994. 7. 26.

해인사 주변에는 여관도 여러 집 있고 산채백반의 간판이 많이 붙어 있다. 지금쯤 서울은 찌는 듯한 날씨인데 이곳 여관에서는 얇은 이불이라도 덮고 자야 할 판이다. 산과 나무와 물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실감하면서 이곳 숲에 감사를 보냈다. 이곳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느 여름에 있어서나 더위를 모르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 한다. 만일 이곳에 숲이 없었더라면 자연 물이 없어질 것이고 숲과 물이 없으면 이곳 기온도 서울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숲이 우리의 환경 그 중에서도 온도 환경을 조절해서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는 지대하다. 나는 그것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7월 25일. 시원한 아침이고 맑

은 공기로 차 있다. 오늘은 나의 생일날이다. 아침 식사에 미역죽이 나왔다. 생일날에는 미역국을 먹는데 이 여관이 알고 한 노릇인지 무척 고마웠다. 미역죽을 먹었으니 나의 생일잔치로서는 최상급으로 치뤄졌다.

택시를 5천원에 대절해서 성철(性徹)스님이 지내시던 해인사 뒤편 산허리에 있는 백련암으로 갔다. 경북 예천 용문사에 있는 윤장대 비슷한 장치가 두 틀 있었다. 그 조각이 정교했다. 이곳 윤장대는 고심원(古心院) 안에 있었고 불상 대신에 성철스님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성철스님이 거처한 염화실(性花室)이 이웃에 있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세속적인 환희를 단절시키고 투명한 공기 속에서 살다가 미련없이 세상을 버리고 간 한 인간상의 위대성을 짐작해 본다. 뜰 앞에 큰 느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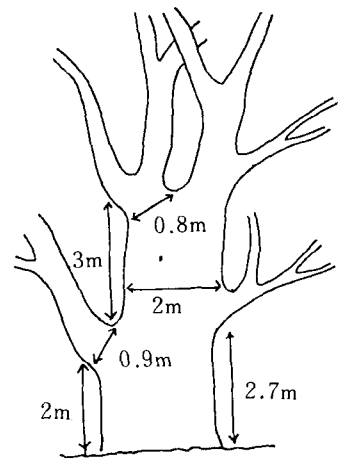


그림 3. 해인사 백련암의 느티나무 골격. 축척은 정확하지 못하다. 1994. 7. 25.

무가 있었다. 평탄한 발 옆에 서 있었다. 가슴높이 줄기직경 2m, 지하고(枝下高) 2m, 수고 22m, 가지퍼짐은 동쪽으로 5m, 서쪽으로 15m, 북쪽으로 10m, 남쪽으로 14m에 이르고 있었다. 지혜로운 사람도 이 느티나무를 쳐다보며 지났고 어리석은 자도 그리하였다.

이곳 느티나무의 대담한 줄기의 골격구조가 인간이 연출해낼 수 없는 예술이라 보고 없는 솜씨이지만 그 실루엣을 그려 보았다. 위대한 생명의 울동 같은 것을 느껴 보았다. 해인사의 오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느티나무는 인간들의 짧은 생애를 내려다보면서 연민의 정같은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인가. 해인사 주변에는 이것 말고도 큰 느티나무들이 많다. 느티나무가 많은 해인사이다.

### 해인사 입구 쪽의 느티나무

해인사 쪽의 나무들을 보고 싶어서 1995년 7월 25일 우등버스로 대구로 향했다. 이날은 나의 생일날이다. 해마다 거의 어김없이 나는 생일날을 사이에 두고 여행길에 나선다. 생일날이면 음식을 만들어 식구가 모여서 함께 먹고 하는 행사가 나의 성미와는 전연 맞지 않는다. 그래서 생일날은 아예 집에 있지 않고 어디론가로 떠난다. 금년 생일날에도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이왕이면 시원한 해인사 산골짜기로 가서 하루 이틀



▲고사한 느티나무. 해인사. 1994. 7. 25.

지내다가 오기로 했다.

해인사는 처음 길은 아니다. 작년에도 이곳에 와서 머문 적이 있다. 해인사 입구 참도 양쪽 길가에는 전나무들이 서 있고 그 사이에 죽은 느티나무의 그루터기가 하나 있다. 줄기가 굵은 것을 보면 천년을 넘은 느티나무가 아니었던가 짐작이 된다. 표지판에는 1100년생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제 이 나무는 삶을 끝내고 그 잔해만을 남겨 지난날의 장엄했던 이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나무의 그루터기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사연은 들여보지 못했으나 남겨두는 쪽이 생명의 존중 관념에 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나무의 육신은 죽었지만 생애를 통해서 그 안에 담고 있던 영(靈)은 그곳에 계속 남을 수 있다. 남아있

는 잔해는 영이 남을 수 있는 거주처가 될 수 있다. 이 나무에 대한 유래의 서명은 더 이어지고 있다. 즉 신라 제40대 애장왕(哀莊王) 3년, 서기 802년에 순응(順應) 이정(利貞) 두 스님이 애장왕후의 만병을 고쳐준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은덕에 보답하고자 법당(法堂), 승료(僧寮) 등 많은 가람을 지어 헌납하였고 해인사의 개산(開山)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느티나무를 심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것으로 따지면 나무의 나이는 약 1100년으로 된다. 1945년에 죽고 말았다. 조국 광복의 앞날을 더 지켜보지 못하고 사라져 갔다.

사람들은 이 나무줄기 위에 돌을 얹어서 복을 빌고 그리고 이 나무의 영혼을 위로하여 변질된 거처에서도 넉넉한 사고를 가지고 지내시라는 기원이 있었다. 전나무 사이를 흘러내리는 햇볕의 다발이 이 그루터기 위로 내려오고 있기에 사진으로 담아보았다. 삶과 죽음의 사이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면서 나는 『너는 살아있는 느티나무다』하면서 걸음을 옮겨 용담선원으로 올라갔다. 이 선원(禪院)으로 들어가는 다리의 명칭이 극락교인데 예술성을 가진 다리이다. 다리 옆에 큰 느티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고 수형목(秀型木)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수형목이라 하면 형질이 좋아서 장차 수목개량을 하는데 기초재료가 될 것으로 인정해 보는



▲느티나무 수형목(직경 50cm, 수고 21m)  
해인사 용담선원 근처, 1995. 7. 26.

나무를 뜻한다. 느티나무는 흔히 굵은 줄기가 좀 올라가다가 많은 가지로 갈라져서 천가닥 만가닥의 작은 가지로 되고 그 전체 모양이 둥근 공처럼 되는데 이곳 수형목은 외줄기가 높게 올라가고 아래쪽에는 결가지가 없다.

이러한 모양의 느티나무는 목재로서의 쓰임새가 뛰어날 것이다. 표지판의 기록을 보면 수령 46년, 나무높이 21m, 흉고직경 50cm, 재적 약 1.6m<sup>3</sup>, 그리고 지하고(枝下高) 8m, 구체적인 소재지는 함천군 가야면 시인리 21-1로 되어 있다. 느티나무는 어릴 때 다른 나무 사이에 끼어서 자라 결가지를 낼 수 없고 또 광선을 더 받기 위해서 위로 위로 키만 자라게 된다. 이러한 효과를 노리는 고밀도식재(高密度植栽)는 느티나무

에 적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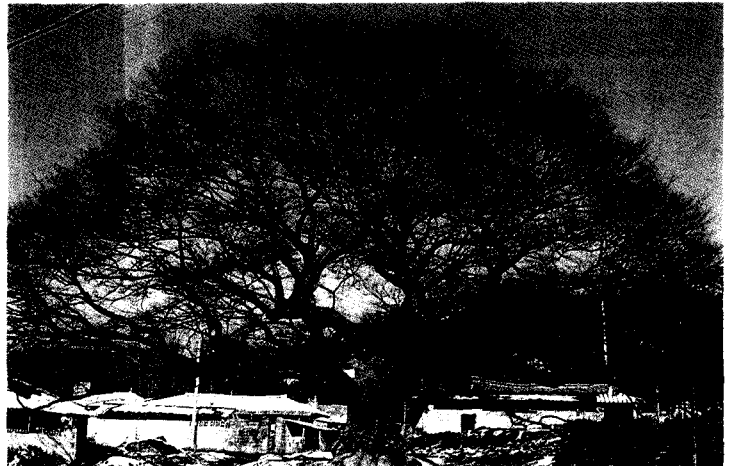
## 서울의 느티나무

창덕궁, 창경궁 경내에는 큰 느티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그 밖에도 서울시내는 곳곳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많다. 1978년에 필자가 발표한 서울 남산의 노거수 목록을 보면 남산에는 해목은 느티나무가 많은 편이다. 남산의 각종 노거목 중 느티나무가 최고령의 자리에 있고 200년생으로 추정된 것이 있다. 흉고직경에 있어서도 70cm에 가까운 것이 있어서 남산에는 이보다 더 굵은 나무는 따로 없다. 이처럼 서울은 느티나무를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

지난날의 서울, 특히 청계천 제방에 따라서는 큰 느티나무도 흔히 서 있었던 모양이다. 도읍지로서의 서울을 성저십리(城底十里)라 해서 내사산(內四山) 안의 면적을 뜻했고 그 면적이 직경 10리

의 규모로 표현한 것이다. 북악산(北岳, 白岳)과 인왕산(仁王山, 仁旺山) 그리고 남산의 물이 모여져 청계천(또는 開川)으로 되고 그 물줄기가 동쪽으로 흐르게 되고 드디어 한강과 합류해서 그 다음부터는 서쪽으로 흘러 황해도 들어간다. 그런데 청계천은 종종 홍수로 범람하여 주거지를 침범하고 제방을 결괘시키고 해서 서울 시민의 주거지 안정성이 극히 취약했던 모양이다. 농경지를 쓸어 문고 가축이 죽게 되고 하수가 범람해서 악취가 진동하고 위생환경도 말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주민들은 오물을 마구 청계천에 던져 서울의 수도로서의 면목이 말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시내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을 동원해서 방축을 쌓고 나무를 심게 하였다. 태종 1년 서기 1411년에는 개천도감(開川都監)이란 관직을 마련하여 청계천의 기틀을 튼튼히 하고



▲느티나무 노거목의 전형적인 수형. 충남 보령 진죽, 197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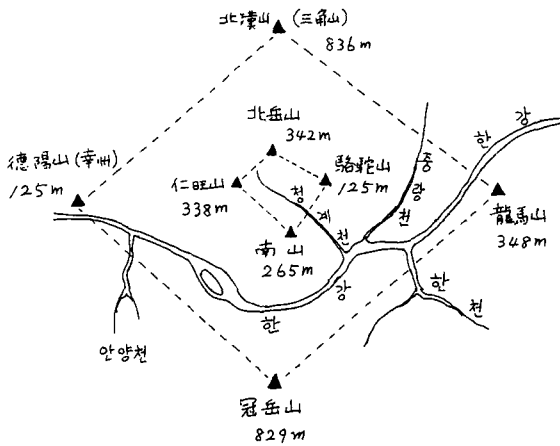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내외사산(內外四山)

자 했고 그 다음 해에는 전라, 경상, 충청 3도의 군인과 민간인 2천 3십 5명(그 중 승려군 5백명)을 동원해서 돌 쌓기와 돌다리 놓기 등을 했다. 세종 4년 서기 1442년에는 43만명의 장정을 동원해서 도성을 수축하고 청계천 개수작업을 끝냈다. 성문도감(城門都監)을 설치한 것도 이 해이다. 그 뒤 청계천 제방에 버드나무류를 식재해서 청계천 임수(林藪)가 조성되었다. 이처럼 서울 청계천 제방의 수립조성은 조선조가 나라의 기틀을 완성하고자 하는 기간에 있어서 실시된 한 본보기로 해석할 수 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최초의 측우기(測雨器)가 세종 24년 서기 1441년에 창안된 것도 이러한 수제에 연관을 가졌을 것이다. 서울 사산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처음에는 감역관(監役官)을 두었으나 후일 이것을 승격시켜 사산참군(四山參軍)으로 하여

기능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했다. 이곳에서는 수해방비를 위한 호안림(護岸林)이 조성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버들 종류의 삼목조립이 많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구한국말경(1910년경)에 청계천 제방에는 느티나무, 소나무, 능수버들, 회화나무 등의 노거목이 많았다고 한다. 느티나무는 서울의 녹지환경을 담당하는 주역수종의 하나였던 모양이다. 지금의 청계천은 인간행위로서 그 모습조차 찾기 힘들다.

느티나무는 서울 시민의 주변에 있으면서 서로 생소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 온 소중한 나무였다.

### 남원 보절면의 느티나무

오래 사는 느티나무, 장수의 나무다. 은행나무, 회화나무, 향나무, 팽나무, 왕버들, 비자나무, 이팝나무, 가시나무, 녹나무, 후박나무 등은 느티나무와 함께 수

하는 개체가 많다. 오래 사는 나무는 대체로 몸집이 크다. 오래살자면 많은 에너지의 축적이 필요하고 그것을 담아 두자면 넉넉한 몸통을 가져야 한다. 주변의 다른 나무와 경쟁에 이기려면 우선 큰 나무로 되어 넓은 생활공간을 점유할 필요가 있다.

느티나무는 집으로 말하면 대궐같은 공간을 자랑한다. 그러면 서도 깨끗하고 품격이 높다. 스스로 화려한 곳을 찾지 않으나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를 영광스럽게 해 준다. 나무 아래는 흔히 민주주의 광장으로 되어서 지방자치의 열매를 맺게 하고 때로는 야외 교육장으로 되어 글방 훈장의 큰 기침소리를 들었고 또 휴식공간으로 간혹은 정신수련의 도장으로 그 기능은 어떤 화려하고 당당한 건물을 능가했다.

우리는 한 마을에 대개 느티나무 한 그루쯤이 있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값진 생물적 문화공간을 가지고 살아왔다.

남원군 보절면 진기리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다기에 1992년 11월 1일 일요일 아침 선뜻 마음을 먹고 채비를 해서 나섰다. 버스로 전주를 지나 남원으로 가서 보절행 시내버스를 탔다. 가다가 진기리 앞쪽 길가에 하차했는데 미리 운전기사에게 내릴 곳을 부탁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도보로 30분쯤 걸어가면 이 느티나무가 나타나는데 시멘트로 포장된 길이라서 걷기에 편리하다. 느

티나무가 대개 그러하지만 이 나무도 모양이 정돈되어 수관이 반달형으로 흠잡을 수 없는 기하학적 선을 연출하고 있었다. 보는 순간 탄성이 새어 나온다.

높이 20m, 가슴높이 줄기둘레 8.0m, 뿌리목 줄기둘레 약 13m, 나이 약 600년, 수관폭은 동서로 24m, 남북으로 26m. 이것은 모두 필자의 조심스러운 측정치이다.

이 나무의 줄기는 지상 2m쯤 되는 높이에서 4개로 크게 갈라지고 다시 3m쯤의 높이에서 8개로 갈라지고 있다. 이처럼 줄기가 갈라짐으로 해서 느티나무는 둥근 수관의 모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보절면의 느티나무의 특이한 점은 땅 표면을 따라 발달한 곁뿌리가 고루 많이 노출되고 노출된 부분에서 돌기가 생겨 위로 발달해서 공기 뿌리를 만들고 있는데 있다. 이러한 기근(氣根)을 영어로 니이(knee)라 하고 낙우송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보절면의 느티나무의 경우 큰 기근은 높이 20cm에 이르고 그 수는 대소간에 얼핏 200여개는 되는 것으로 보았다. 느티나무의 기근은 보기 힘들다. 사람들이 이 나무 아래를 잘 찾기에 기근의 끝이 마모된 것이 많았다. 이 나무는 낮은 산자락 아래 평탄한 언덕 위 밭가에서 있는데 왜 이러한 기근이 발달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숨을 더 쉬어 보겠다는 뿌리의 생리일 것이나 이것 때문에도 이 나무는 더 값진 것으로 되고 있다.



▲남원 보절면의 느티나무. 1992. 11. 1.

길가에서 남원으로 오는 버스를 긴 시간을 보내도 잡지 못했고 마침씨 좋은 아저씨의 대형트럭으로 간신히 나와 오후 6시쯤에 추어탕으로 점심을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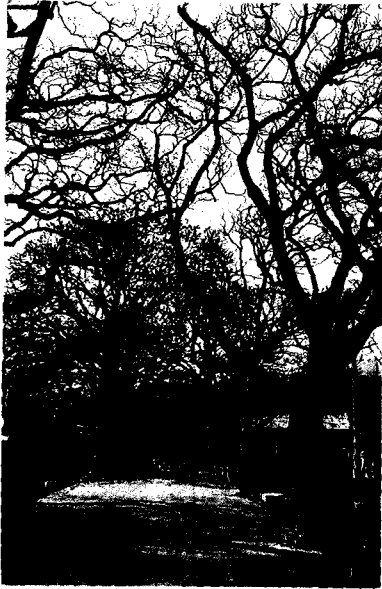
### 관악산의 느티나무

지난 여름 나는 두세 번 서울의 관악산을 오른 적이 있다. 몸 속의 액체로서의 잔재인 땀을 모조리 빼어 버리고 생리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고 활엽수림에서 풍겨내는 싱싱하고 맑고 보약 같은 공기를 가슴 속 깊숙이 넣어 기체적으로도 무언가 혁신을 일으켜 보자는 의도가 있었다. 이처럼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등산을 꾸준히 못하는 나의 나약한 의지에 스스로를 미워해 보기도 한다.

관악산에 오르는 코스는 나에

게는 두세 개가 있으나 힘들지 않은 코스를 즐긴다. 아카시아 동산이 있는 코스도 좋다. 관악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카시아 동산을 사랑하게 된다.

어느 날 나는 서울대학교 교문 쪽에 가까운 관악산 등반 입구를 통해서 올라갔다. 짹짹 쪼이는 태양의 열기는 포장된 입구 도로를 사정없이 달구어 반갑지 않은 더위를 내뿜고 있었다. 이때 다행하게도 길 옆을 따라 느티나무가 줄로 서서 냉각된 그늘을 던지고 있었다. 관악 등정은 몸을 구어 댈 작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식혀 댈 목적으로 오르는 것이다. 흐르는 땀은 생각의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지나친 땀흘림은 지나친 몸의 냉각을 가져오므로 피해야 한다. 누가 심은 길가의 느티나무인지 모르나 나는 느티나무 그늘이 주는 은혜에 한없이 감사를 표했



▲ 느티나무가 있는 숲. 경남 양산 석계리. 1991. 12. 11

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느티나무는 달고 있던 잎을 떨구어 길바닥에 햇볕을 내려줄 것이다. 원초적으로 마련된 자연의 순리 또는 질서라지만 인간을 위해 마련된 듯한 느낌이 적지 않다. '우리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구나.' 하고 느티나무를 다시 쳐다보았다.

관악산 꼭대기 가까운 곳에 웅달샘이란 휴게소가 있다. 너무 맑은 공기에 허파가 놀래지 않을까 했다. 알맞은 바위 위에 신문지 한 장을 깔고 나는 몇 시간 동안의 명상속으로 빠져들었다. 내가 만일 시냇가 모래 밭에 앉았다면 어떻게 긴 시간 동안 그대로 앉아서 사색을 할 수 있었을까? 집안 거실에 앉아서 이러한 시간

을 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숲 속에서만 가능하다. 나무와 숲의 위력이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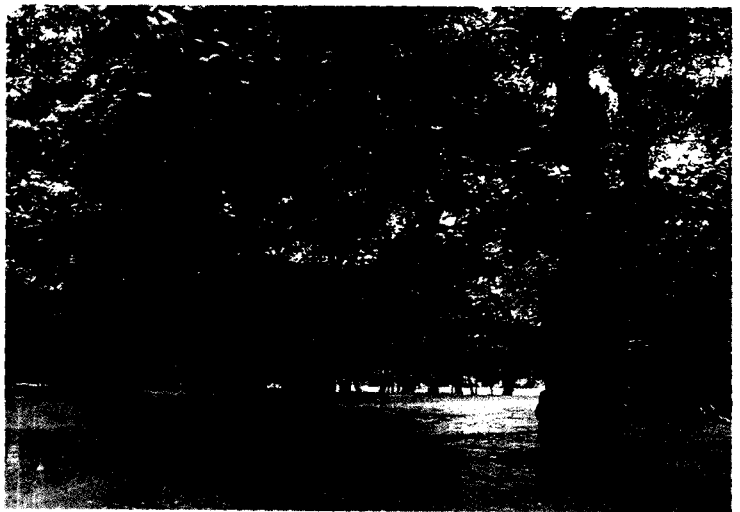
느티나무는 지금 서울대학교의 교목(校木)으로 되어 있다. 좋은 나무를 선정한 것으로 안다. 몇 달 전 서울대학교 미술학 교수가 나를 찾아와 개교 기념행사로서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 교수는 큰 느티나무의 그림을 만들어 넓은 벽에 다는 일을 맡았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나라 각지의 유명한 느티나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이는 대로 자료를 제공했는데 그 교수의 말이 춘추동 어느 때의 느티나무 그림 하나를 나에게 선물할 터이라고 했다. 가을이나 겨울의 느티나무가 좋을 성싶는데 작품을 보고 결정해야 겠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집 벽에는 황홀하게 아름다운 느티나무 그림이 붙게 될 것이다.

그 날이 기다려진다.

사실 느티나무는 일정시대부터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교를 상징하는 나무였다. 나무는 시대와 체제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기알부할 것은 못된다. 느티나무는 위엄이 있고 지적(知的)인 나무이며 아름다운 나무이다. 그리고 그 오래사는 힘이 부럽다.

## 계림의 느티나무

경주에 있는 계림(鷄林)은 느티나무, 회화나무, 팽나무, 왕버들 등 노거목들이 모여서 만들고 있는 종교림(宗敎林)의 성격을 가진 숲(林藪, 임수)이다. 계림은 너무나도 이름난 숲이다. 삼국사기에 『탈해왕 9년(서기 65년) 3월 왕이 밤 중 금성(金城) 서쪽에 있는 시림(始林)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새벽에 호공(瓠公)을 보



▲ 경주계림. 1985. 10. 4

내어 조사시킨 바 있다. 보아하니 나뭇가지에 황금으로 된 상자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 흰색 닭이 울고 있었다. 호공이 이 사실을 돌아와 임금에게 보고하자 왕은 사람을 시켜 그것을 가져와 열어 보았다. 그 안에 어린 사내 아이가 있었는데 그 용모가 기이하고 출중했다. 그래서 왕은 기뻐하면서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아이가 아닌가 하고 양육하였더니 총명하고 지략이 뛰어났다. 그래서 이름을 알지(關智)로 하고 금궤에서 나왔다고하여 성을 김(金)으로 하였다. 그리고 시림이란 명칭을 계림으로 고쳤다. 그리고 계림을 나라의 이름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 삼국사기에 『김알지의 탄생은 전설적 요소를 담고 있으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전하여 사실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 했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란 말이 있듯이 느티나무는 그의 격에 맞을 만한 팽나무, 회화나무, 시무나무, 왕버들을 친구로 해서 계림의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그의 품위에 어울린다. 위대한 인물은 위대한 숲에서 태어난다는 역사는 다른 곳에서도 읽을 수 있다. 계림은 잘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일본의 느티나무

일본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처럼 고향의 나무로서 곳곳에 느티



▲느티나무의 숲(132주). 전북 완주 봉등 장거리. 1991. 1. 20.

나무가 식재되었다고 한다. 식재의 목적은 그 나무 모양의 아름다움과 바람막이 기능에도 있었지만 목재의 용도에도 큰 비중이 주어졌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느티나무의 목재의 색깔을 두 갈래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붉은 느티나무』라 해서 비싼 것이고 다른 하나는 『푸른 느티나무』라 해서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 가격의 차이가 전에는 컸으나 지금에 와서는 가공기술, 건조기술이 발달되고 또 느티나무재의 자원이 줄어들어서 가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일본 임업시험장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피의 모양, 잎의 크기, 가을 단풍, 줄기의 타음(打音) 등으로는 심재가 더 붉은 붉은느티와 그렇지 못한 푸른느티

의 구별은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중국에 있어서도 특히 심재가 선홍색인 것은 혈거(血槲)라 해서 그 목재를 귀하게 여겼다고 한다. 일본 동부의 느티나무는 줄기가 비교적 곧고 서부의 느티나무는 지하고가 낮고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고 한다. 그들의 경험으로서 단풍 색깔은 유전적으로 보이는 개체변이일 것이라 하고 있다. 목재 생산을 위해서는 줄기가 곧고 지하고가 길며 자람이 왕성하고 심재가 붉은 나무를 선발해서 개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느티나무는 가지의 분기각도(分岐角度)에 있어서 빗자루형 또는 드리운형이 조경적 가치가 평가될 만하다. 빗자루형 느티나무는 좁은 가로의 가로수로 알맞을 것이다. 잔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처진느티나무는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수형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느티나무의 연구 특히 육종적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다.

줄기에 혹이 발달하면 그것은 목재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수고는 보통 20-25m, 흉고직경은 60-70cm 이지만 큰 것은 수고 50m, 흉고직경 3m에 이르는 것이 기록되고 있다. 일본 도요코 지방에서는 가장 굵게 자라는 나무는 은행나무, 그 다음이 느티나무, 세번째가 푸조나무(팽나무에 닮아 있다) 등으로 집계된 바 있다.